

‘핵심어 풀이를 활용한 국어국문학과 전공 수업의 실행 연구’에 대한 토론문

장채린(명지대)

주지하다시피 한국 대학교의 전공 수업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애로 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유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지만, 한국어로만 진행되는 전공 영역 강의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어휘 내지는 개념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공 수업 내에서 논의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을 이루는 어휘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 그 전공의 이론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도 유관한 개념이 이미 스키마(schema)로 형성되어 있고, 관련 어휘가 이미 그들의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교수자는 이론의 논리적인 부분의 설명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는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전문 용어 및 학술 용어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전공 수업을 위하여 유학생들에게는 예습하면서 주요 어휘에 대하여 미리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위 연구는 현재 여러 대학의 전공 수업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실천적, 실용적 연구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학기 초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의 추가적인 고찰이 선행된다면 어떨까 싶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핵심어 이전에 학술 도구어 내지는 사고 도구어와 같이, 핵심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술적인 어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핵심어’ 즉 전공서의 특정 챕터의 ‘중심 내용’을 이루는 핵심어의 의미를 미리 공부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만약 핵심어만을 풀이하게 된다면 그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 도구어 등과 같은 핵심어 외의 학술 어휘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학생이나 교수의 어려움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본 실행 연구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고 싶다.

둘째로, 이 발표의 내용이 계획의 내용만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필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발표문 4.2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 4.2에 개조식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수집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 내용이 될 것이며, 어떤 단계에 의하여 수집될 것인지, 수집된 자료가 마무리 단계의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학기말 최종 성적 분석과 어떻게 관계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핵심어 풀이에 대한 과제의 효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발표문 4.1에서 간단히 제시하기는 하였다. 필자 또한 전공 수업에서 핵심어 풀이 과제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과제를 실시할 때 단순히 해당 내용을 찾아와서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

면 그것은 단기기억의 영역으로만 저장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 오는 과제를 부여하여 장기기억으로의 편입을 유도한 적이 있었다. 혹시 핵심어 풀이 과제를 그동안 진행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그러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제안은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하다.